

2025 태재미래전략연구원 에세이 공모전 우수상

지식의 경계를 넘어 : 글로벌 문제 해결 선도국가를 꿈꾸며

발제 | 한창희

시작하는 글 : 한국이라는 특별한 이야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를 바라보면, 현대 문명의 두 얼굴이 동시에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인간 역량의 확장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후 위기, 팬데믹, 디지털 격차, 지정학적 갈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의 특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과 70년 전, 한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던 우리는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자,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문화 강국이며,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의 선도국가가 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이 식민 지배, 전쟁, 독재, 민주화, 금융위기, 디지털 혁명이라는 압축적 근대화의 여정을 거치며, 인류 역사의 압축판과도 같은 경험을 축적해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한국의 이야기가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복합적 위기 속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국의 발전을 이룩한 성공 사례를 넘어,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독특한 경험과 통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주체가 바로 한국의 싱크탱크들입니다.

우물 안 개구리에서 바다의 항해자로

어느 날 저는 세계적인 싱크탱크 협력 네트워크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중국 등 각국의 유수 싱크탱크 대표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리셉션에서 미국의 한 연구소 대표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지식 생산 모델은 무엇인가요?”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들은 뛰어난 정책 분석과 제안을 해왔지만, ‘한국적 모델’이라고 부를 만한 독창적 지식 생산 방식을 발전시켜 왔는가? 우리는 주로 서구에서 개발된 연구 방법론과 지식 체계를 학습하고 적용하는데 능숙했지만, 과연 우리만의 독특한 관점과 접근법을 발전시켜 왔는가?

이 질문은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남아있었고, 한국 싱크탱크의 정체성과 미래 방향에 대한 깊은 성찰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물 안 개구리'처럼 국내 정책 지원이라는 한정된 영역에서 활동해 왔던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제는 '바다의 항해자'로 거듭나, 글로벌 지식의 대양을 누비며 인류 공동의 도전 과제 해결에 기여해야 할 때가 온 것은 아닐까?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문제 해결 선도자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 네트워크를 확대하거나 영어 출판물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지식을 생산하고 소통하고 실천하는 방식 자체를 혁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혁신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한국 싱크탱크, 다섯 개의 새로운 얼굴

■ 경계의 춤꾼 - 제3의 지식 공간 창출자

어느 날 저는 베트남 하노이의 한 카페에서 현지 싱크탱크 연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트남의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서구 중심적 발전 모델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국가 주도 발전과 시장 중심 혁신 사이의 경계에서 춤을 추며, 독특한 '제3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요.

한국 싱크탱크의 첫 번째 새로운 얼굴은 '경계의 춤꾼(Boundary Dancer)'입니다. 이는 기존의 이분법적 사고와 지식 체계를 넘어, 다양한 세계관과 접근법이 만나고 융합하는 '제3의 지식 공간'을 창출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아시아 지혜와 현대 위기'라는 연구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적 세계관(예: 천인합일, 공존공영, 자연과의 조화 등)이 기후 위기, 팬데믹, 디지털 전환 같은 현대적 도전 과제에 어떤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지 탐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방 후 한국 발전 경험의 재해석' 프로젝트를 통해 서구 중심적 발전 이론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발전 경로와 메커니즘을 발굴하고, 이를 현재 유사한 도전에 직면한 국가들에게 대안적 관점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의 춤꾼' 역할은 단순한 학술적 실험이 아닙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정학적 분열, 문명적 갈등, 가치관의 충돌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다양한 지식 체계와 세계관을 연결하고 대화시키는 것은 인류의 공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적 작업입니다.

■ 미래의 정원사 - 미래 설계자

한국의 발전 경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 하나는 미래를 향한 분명한 비전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적 사고입니다. 농경사회에서 디지털 강국으로,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의 전환 과정에서 한국은 끊임없이 미래를 상상하고, 설계하고, 구축해 왔습니다.

한국 싱크탱크의 두 번째 얼굴은 '미래의 정원사(Future Gardener)'입니다.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가꾸고, 열매를 맺도록 하듯이, 한국 싱크탱크는 바람직한 미래의 씨앗을 발굴하고, 이를 현실에서 꽃피우기 위한 조건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래 예측이나 시나리오 분석을 넘어, 적극적으로 바람직한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경로를 설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50 탄소중립 사회 비전'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제도,

생활양식, 가치관의 변화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미래 사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계별 전환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러한 미래 설계 과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히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미래 세대 포럼'과 같은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청년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직접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현장의 연금술사 - 실험적 해법 개발자

한국의 발전 과정은 이론서에 적힌 대로 따라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실험, 적응과 혁신의 산물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 산업화 정책, 정보화 전략 등 성공적인 정책 사례들은 모두 현장에서의 실험과 학습을 통해 발전했습니다.

한국 싱크탱크의 세 번째 얼굴은 '현장의 연금술사(Field Alchemist)'입니다. 중세의 연금술사들이 다양한 물질을 결합하여 금을 만들고자 했듯이, 한국 싱크탱크는 다양한 지식과 경험, 자원을 결합하여 현장에서 작동하는 혁신적 해법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싱크탱크의 전통적인 역할인 정책 제안을 넘어, 직접 해법을 설계하고 실험하고 검증하는 '액션 싱크탱크(action think tank)' 모델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기후 위기 대응 지역사회 실험실'과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 특정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에너지 전환, 순환 경제,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을 통합한 실험을 진행하고, 이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확장 가능한 모델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의 연금술사' 역할은 특히 복잡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사회적 양극화 같은 문제들은 단일한 해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접근법과 아이디어를 실험하고 학습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다리 놓는 사람 - 글로벌 가교자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대륙과 해양,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다양한 문화와 영향에 열려있으면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는 지혜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한국 싱크탱크의 네 번째 얼굴은 '다리 놓는 사람(Bridge Builder)'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지정학적 긴장, 문명 간 갈등, 이념적 분열이 심화되는 세계에서, 한국 싱크탱크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관계 사이에 대화와 협력의 다리를 놓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국제회의를 개최하거나 글로벌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는 '중립적 플랫폼(neutral platform)'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글로벌 남북 협력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지식, 기술, 자원 교류를 촉진하고, 공동의 해법 개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G7과 같은 선진국 그룹과 G77과 같은 개발도상국 그룹 모두와 소통할 수 있는 독특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러한 위치를 활용하여,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 같은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는 '정직한 중개자(honest broker)'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심연의 탐험가 - 통합적 지식 합성자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은 단일 학문 분야나 접근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기후 위기는 과학기술의 문제인 동시에 경제, 사회, 윤리의 문제이며, 디지털 전환은 기술의 영역을 넘어 인간의 정체성, 공동체, 민주주의의 본질에 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한국 싱크탱크의 다섯 번째 얼굴은 '심연의 탐험가(Deep Explorer)'입니다. 이는 표면적 현상을 넘어 문제의 근원적 구조와 패턴을 탐구하고, 다양한 지식 분야와 관점을 통합하여 보다 깊은 이해와 해법을 모색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기술-자연의 공존 패러다임' 연구를 통해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을 아우르는 통합적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는 '디지털 전환과 인간 존재의 재정의' 프로젝트를 통해 기술 발전이 인간의 정체성, 사회적 관계, 가치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차원적으로 탐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연의 탐험가' 역할은 단기적 해법을 넘어, 우리 시대의 근본적 도전과 가능성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하고 통합적인 해법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씨앗: 한국 싱크탱크 혁신을 위한 실천적 제안

위에서 그린 한국 싱크탱크의 다섯 가지 새로운 얼굴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창한 조직 개편이나 예산 증액보다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의 씨앗'을 심고 가꾸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 경계를 허무는 공간 만들기

첫 번째 실천적 제안은 물리적·심리적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고 대화하는 '열린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 실천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 **지식 카페(Knowledge Café) 운영:** 싱크탱크 내부에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하여 연구자들과 대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을 마련합니다.
- **융합 연구 챌린지(Convergence Research Challenge) 개최:** 특정 글로벌 도전 과제(예: 기후 위기, 디지털 격차 등)에 대해 다양한 학문 분야와 배경의 전문가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집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 **글로벌 다이얼로그 시리즈(Global Dialogue Series) 운영:** 국적, 문화, 이념적 배경이 다른 싱크탱크와 전문가들이 특정 주제에 대해 심층적인 대화를 나누는 정기적인 온/오프라인 포럼을 개최합니다.

■ 미래 세대와 함께 꿈꾸기

두 번째 실천적 제안은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 세대가 미래 비전 형성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 **청년 미래 위원회(Youth Future Committee) 설치:**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로 구성된 자문 기구를 설치하여, 싱크탱크의 주요 연구와 프로젝트에 청년 관점이 반영되도록 합니다.

•**미래 디자인 스쿨(Future Design School)** 운영: 청년들이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상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 프로젝트를 직접 개발하는 교육·실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세대 간 대화 포럼(Intergenerational Dialogue Forum)** 개최: 다양한 세대의 전문가와 시민들이 함께 미래 비전과 정책 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합의를 형성하는 플랫폼을 마련합니다.

■ 실험과 학습의 문화 조성

세 번째 실천적 제안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법을 시도하고 학습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혁신 실험실(Innovation Lab)** 설립: 싱크탱크 내에 기존의 연구 방식과 조직 구조에 구애받지 않고 혁신적 프로젝트를 시도할 수 있는 자율적 공간을 마련합니다.

•**프로토타입 펀드(Prototype Fund)** 조성: 실험적이고 위험성이 높지만 잠재적 영향력이 큰 연구와 프로젝트에 소규모 자금을 지원하는 내부 펀드를 운영합니다.

•**학습 축제(Learning Festival)** 개최: 성공 사례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도 공유하고 이로부터 배우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기적인 내부 행사를 개최합니다.

■ 글로벌 협력의 새로운 모델 개발

네 번째 실천적 제안은 단순한 네트워킹을 넘어, 실질적인 지식과 자원의 교류를 촉진하는 새로운 글로벌 협력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식 교환 프로그램(Knowledge Exchange Program)** 운영: 한국과 해외 싱크탱크 간 연구자 교류를 넘어, 공동 연구, 현장 방문, 정책 대화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글로벌 솔루션 네트워크(Global Solution Network)** 구축: 특정 글로벌 도전 과제(예: 기후변화, 팬데믹 대응 등)에 대해 다양한 국가와 지역의 싱크탱크, 전문가, 실무자들이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주제별 네트워크를 구축합니다.

•**디지털 협력 플랫폼(Digital Collaboration Platform)** 개발: 물리적 제약을 넘어 언제 어디서나 글로벌 파트너들과 지식과 아이디어를 교류할 수 있는 디지털 협업 도구와 공간을 마련합니다.

■ 깊이 있는 사고와 소통 장려

다섯 번째 실천적 제안은 빠른 결과보다는 깊이 있는 사고와 의미 있는 소통을 장려하는 문화와 제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심층 연구 시간(Deep Research Time)** 보장: 연구자들이 단기 프로젝트와 행정 업무에서 벗어나 깊이 있는 사고와 탐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보장합니다.

•**질문 중심 세미나(Question-driven Seminar)** 운영: 답을 제시하기보다 중요한 질문을 발굴하고 함께 탐구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 세미나 시리즈를 운영합니다.

•**스토리텔링 워크숍(Storytelling Workshop)** 개최: 연구자들이 복잡한 아이디어와 발견을 다양한 청중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역량을 개발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치는 글 : 지식의 경계를 넘어

여행을 떠나기 전, 우리는 종종 익숙한 일상과 편안한 공간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한국 싱크탱크들이 '우물 안 개구리'에서 '바다의 항해자'로 거듭나는 여정을 시작하는 지금, 우리는 그와 비슷한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익숙한 연구 방식과 조직 문화를 벗어나,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모색하는 것은 분명 도전적인 과제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과 혼란, 때로는 실패와 좌절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도전을 받아들이고 지식의 경계를 넘어설 때, 한국 싱크탱크는 글로벌 문제 해결을 선도하는 창의적 지식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작은 실험과 시도, 실패와 학습, 대화와 협력의 누적된 결과로 점진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첫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지속적인 혁신의 의지입니다.

한국은 그동안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 '민주화의 모범'이라 평가받는 정치적 전환, 그리고 최근의 '문화 한류'라는 놀라운 성취를 이루어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 한류'라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때입니다. 한국의 싱크탱크들이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 지식과 혁신적 해법의 원천으로 자리매김할 때, 한국은 진정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식의 경계를 넘어, 더 나은 세계를 향한 항해가 지금 시작됩니다.
